

주안평강(살름)!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고국의 코로나소식을 들으면서 저희 내외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통치하심 가운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며 예배와 삶이 회복되고 이 위기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며 승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 카메룬 코로나 확진자 90 명으로 늘어

3 월 6 일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후 카메룬의 코로나 확진자가 빨리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월 27 일 현재 90 여명의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알려 졌으나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00 명이 넘는 시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된다는 보고가 있기에 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가운데 진단혜택 조차도 못 받는 가난한 서민들과 열악한 검역, 치료시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카메룬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자 초기대응차원에서 총리 발표로 3 월 18 일부터 국경폐쇄가 되고 일단 모든 국제 민항노선이 중단되었으며 카메룬입국비자 발급이 금지되었습니다. 현재 공립, 사립학교는 휴교상태이며, 50 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과 유흥업소는 저녁 6 시부터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의 다음 방침이 발표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현재 카메룬복음신학대학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휴교 상태입니다. 이번주까지 근무하는 교직원들과 기도모임을 하며 이 땅에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 에메나교회 전도대회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

지난해 12 월 20-22 일(금-주일) 야운데 수도 근교에 위치한 에메나(Emena) 교회에서 카메룬신학교 30 명의 전도 정예대원들이 전도대회를 위해 출정하였습니다. 건기의 뜨거운 더위와 황사라는 거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 지역에서 눈에 두드러진 현상가운데 하나는 천주교의 그릇된 신앙관에 사로잡힌 현지인들이 신학생들의 전도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기도 하지만 신실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경험하는 성령님의 역사와 구령의 기쁨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통종교(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모슬렘이 주님을 영접을 하였습니다. 이들 간의 노방전도를 통해 140 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 가운데 85 명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31 명의 기존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 2 학기 개강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

2 월 11 일 (화) 2 학기 개강예배와 교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개강예배에는 교직원들과 교수들, 신학생들이 함께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지학장인 곽여경선교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라(출 33:11; 17-2)”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듯 친밀함을 추구했던 모세처럼, 주님의 임재의 경험과 친밀함이 삶의 실체가 되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 친밀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교하였습니다. 설교후에는 교무처장 아슬로교수의 집례로 성만찬을 하였습니다. 예배후에는 함께 만찬을 나누었으며 교수들과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학사,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신학교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수진이 대부분 시간강사들로 구성되었는데 지난 10 여년동안

신학적으로나 가르치는 역량이 검증된 교수들입니다. 이들과 좋은 대화와 발전 방안을 나누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2 학기 강의 “1 호 선교학 박사들의 본격적인 수업 참여”

2 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본교 출신인 4 명의 선교학 박사들인 임마누엘(Emmanuel Fuhbang), 엘리아스(Elias Ngomediage), 로쉬(Roch Ntankeh), 자크(Jacques Sap)는 선교학 강의들을 맡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조교나 참관수업 등으로 교수사역을 준비해온 이들이기 때문에 강의와 교수사역을 잘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박사과정의 설립목적 중에 하나가 현지교수양성이기 때문에 지난 해 졸업한 네 명의 박사들이 카메룬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현재 신학교의 어려운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그들은 현지선교사 신분인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직접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외부 선교비 후원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저와 박사과정 디렉터인 David 교수는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매월 후원비를 지원하기 위해 후원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 카메룬복음신학대학 사역과 후원요청

- ☆ 2020년 2월 10일 2019-20 학년도가 2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 카메룬신학교 이사회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신학교 이사로서 섬기실 교회와 개인(성도)은 선교국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후원이사 10 만원, 실행이사(임원)는 30 만원을 후원, 약정해 주시면 됩니다.
 - ☆ 새로 임용된 4 명의 선교학 교수들 가운데 임마누엘과 로쉬교수에게 지급할 후원금 (매월 각각 20 만원)이 필요합니다.
 - ☆ 신학교 운영과 현지 신학생 신학훈련과 엔게디 청소년 음악사역을 위해 재정적으로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국 재정팀에 전화로 문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첫 송금시 “카메룬신학교”후원임을 꼭 알려 주세요: 선교국 전화 (02-3459-1031)
 - ❖ 후원계좌: (국민은행) 839-25-0006-901 (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 ❖ 미주후원문의: 미주성결교회 본부 (213-427-0691)
- Pay to the Order: KECA
Check 하단에 “카메룬복음신학대학” 후원임을 꼭 적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기도응답의 많은 열매들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선교현장에서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카메룬 영어권 지역의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의 대화채널이 열리고 있는데 속히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주소서.
-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직면한 카메룬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며 현지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승리하며 강건하게 하소서.
- 카메룬복음신학대학 2019-20 학년도 주제는 “변혁의 해” (the year of transformation)인데 신학교가 진리, 진실, 투명, 영적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소서.
- "엔게디차임벨콰이어" 신입단원들이 제자훈련과 차임벨 악기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곽여경선교사 내외가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충만하여 늘 승리하게 하소서.
- 미국의 코로나 상황가운데 딸 은진이가 기숙사에 고립되어 지내는데 건강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게 하소서.